

오순절 후 열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0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7월 2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통일 5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0번 시편 67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엡(Ephesians) 3:14-21, 요(John) 6:16-21	정강섭 집사
찬 양 Anthem	“감사함으로 받으면”	찬양대
설 교 Sermon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Make Known The Love of Christ)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304장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일 40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메마른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였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않으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여,

이제부터는 소유 보다 존재에 집중하며,

변함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삶이 하나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44, 눅 12:1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8-19)

“May have power, together with all the saints, to grasp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and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 that you may be filled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Ephesians 3:18-1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28 (주일)	7/29 (월)	7/30 (화)	7/31 (수)	8/1 (목)	8/2 (금)	8/3 (토)
본문	삿12	삿13	삿14	삿15	삿16	삿17	삿18
	행16	행17	행18	행19	행20	행21	행22
	렘25	렘26	렘27	렘28	렘29	렘30,31	렘32
	막11	막12	막13	막14	막15	막16	시1,2

수/요/ 찬/양/집/회 Back to School 특/별/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7/31수 오후7:30)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갈6:14-18)
Back to School 특별기도회 (8/3토 오전6:30)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6:5-15)

지난 주일 (7/21) 말씀 – 조문길 목사 (PCUSA 총회 한인목회실)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마 13:24-30)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일곱가지의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마13:24-30)은 그 두번째 비유(일명, “곡식과 가리지의 비유”)로서, (이어지는) 36절부터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직접 설명해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종말의 때까지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과 그렇지 못할 자들이 함께 이 세상에 공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해보면... “추수 때”는 인생의 종말 곧 “죽음”을 의미하고, “밭”은 우리의 “인생”이며, “좋은 씨”는 옳게 살아보겠다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이고 “곡식”은 누가 보아도 “뚜렷한 결과물”이며, “가리지”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물”, 즉 우리의 아픈 과거, 숨기고 싶은 순간, 아픈 상처, 그리고 좌절 등으로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리지”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장에 가리지를 뽑을 것이 아니라, 그 가리지를 품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또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리지를 품고 끌어안으며 살아가게 될 때,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어서나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